

2025년도 제5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5년 3월 13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창용 의장(총재)
신성환 위원
장용성 위원
유상대 위원(부총재)
황건일 위원
김종화 위원
이수형 위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여자	김언성	감사	이종렬	부총재보
	김웅	부총재보	채병득	부총재보
	권민수	부총재보	박종우	부총재보
	이지호	조사국장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최용훈	금융시장국장
	윤경수	국제국장	주재현	외자운용원장
	백무열	법규제도실장	임건태	금융통화위원회실장
	허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1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5년 3월)」 (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5년 3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위원 간 사전 협의 결과 작년 9월에 개편된 보고서의 작성체계를 유지하되, 최근 정책여건 변화와 정책수행 상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하기로 하였음. 특히 작년 하반기 통화정책 기조 전환 이후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가 큰 상황에서 주요 정책수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충실히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음.

일부 위원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 대상기간 중 가장 큰 여건 변화임을 강조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무역갈등으로 국내외 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주요국 인플레이션 경로 및 통화정책 기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국내외 성장,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서술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와 관련한 분석을 보고서에 수록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경제상황과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다음으로 3월 6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일부 위원들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은 환율 변동성 증대에도 외화자금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외화자금 조달여건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미국의 성장세 둔화 우려 증대 및 주가 조정, 유럽의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 등 최근 상황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소기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나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선행지표 개발 및 준구조 모형 확장 등 그간의 경제 전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5년 3월)(안)(생략)